

고농도에 다량살포 일반화

희석배수 제대로 안 지켜 안전사용에 많은 문제점

農經研, 농가 조사 결과

우리나라 농민들은 병충해방제시 규정희석농도를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고농도의 농약을 살포하고 있어 농약의 안전사용과 효과 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사실은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의 생산경제 연구실팀이 “병충해방제현황과 방제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농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농가의 경우 대부분의 농가가 농약을 고농도로 사용하고 액량도 적게 뿌리고 있었다.

살균제의 희석농도는 평균 950배로 사용하고 있으며 살충제의 경우 780배로 사용하고 있어 상당히 고농도로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표 1>

<표 1> 농가규모별 농약 희석배수

경지규모별	희석배수*		희석물량** (l/10a)
	살균제	살충제	
大(7,200~)	1,024	802	121
中(3,600~ 7,200)	933	786	117
小(~ 3,600)	917	750	108
평 균	952	779	118

* 기준희석배수 : 1,000배액

** 희석물량기준 : 120l/10a

희석배수는 <표 1>에서와 같이 경지가 적을수록 고농도로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농(小農)층의 노력 및 지식이 낮은 경향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 가운데는 동력분무기의 소유여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賃作業방제에 의존하고 있는 소농가에서의 살포요금은 농약살포액량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살포액량을 줄이고 고농도로 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살균제는 고농도로 사용할 경우 약해가 심하나 살충제는 상대적으로 약해가 적으며 고농도일수록 살충효과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살충제 사용시 고농도 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농도 사용은 친적의 감소와 농약중독 사고 및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농약의 형태별 사용 현황은 <표 2>에서와 같이 유제, 수화제 등의 액제가 12.5회로 전체의 7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보급되기 시작한 입제가 2.9회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병충별, 농약형태별 사용농약수

병충명	유제	분제	입제	계
도열병	4.0	0.4	1.4	5.8(33.3)
문고병	2.2	0.4	—	2.6(14.9)
백고엽병	2.5	—	—	2.5(14.4)
이화명충	3.0	—	1.5	4.5(25.9)
별 구	0.8	1.2	—	2.0(11.5)
계	12.5 (71.8)	2.0 (11.5)	2.9 (16.7)	17.4 (10.0)

()内는 전체에 대한 비율임.

농약선택에 있어서는 대다수가 자신이 결정하고 있으며 농약결정 이유를 볼 때 자신의 사용경험이 32%인 반면 이웃에서의 사용효과를 보고 결정하는 농가가 46%나 되고 있다. <표 3, 표 4>

<표 3> 개인방제시 농약선택결함

구분	호수	비율(%)
본인이 결정	28	56
이웃에게 문의결정	9	18
지도소나 지도자가 권하는 것	8	16
농협이나 농약상에서 권하는 것	5	10
계	50	100

<표 4> 농약 선택 기준

구분	호수	비율(%)
전에 써 본 것을 구입	16	32
선전문을 보고 구입	10	20
이웃에서 사용하여 효과가 인정된 것	23	46
계	50	100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농가의 농약결정 의지는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농약의 구입도 현행 농협판매와 같은 공급체제를 원하고 있어 약간의 문제점만 개선된다면 농약공급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이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농가의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크며 적기에 적제의 약을 적량사용하여 병해충을 경제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농민의 농약사용기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병충해 방제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